

신안군,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 자료조사 용역보고회 개최

2012년부터 국내 섬 생활사자료 1500여점 수집

“육지에서 보기 힘든 섬 역사 문화 보여줄 것”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걸음인 신안군은 2012년 흑산권역을 시작으로 섬 생활사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간 결과보고회를 지난해 12월 28일 개최했다.

신안군과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흑산·홍도·가거도(2012), 비금·도초(2012), 자은·표문철 소장(2013), 자은·암태(2013), 안좌·팔금(2014), 입자도(2014), 압해도(2019), 지도(2020)와 진도, 완도, 경남 통영지역의 섬 생활사 자료들을 조사해 총 7권의 단행본을 발간했으며,

1,500여점의 생활사자료를 수집했다. 섬마다 아직 남아있는 생활 도구들은 주민들의 노령화 산업화로 인해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어 사용했던 사람으로부터 제작 경위와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하고 기증받았다.

섬사람들은 육지인 섬, 섬과 바다의 접경지역인 갯벌, 그리고 바다에서 생업활동을 한다. 섬의 생태 환경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한 섬사람들의 생활도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며, 도구의 형태나 기능 등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

다. 섬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 등 어업 활동을 하며 살 것이라 생각하지만, 농토가 없어서 경작이 어려운 일부 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섬에서는 주곡을 얻기 위해 농경 생활을 해왔다. 때문에 섬사람들의 삶과 생업에서 어구보다 농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들의 농기구와 생활도구는 섬 생활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실례로 우이도 진리마을에서 수집된 ‘따비’는 소가 없는 섬에서 쟁기 대신 많이 사용된 농기구로 밭을 일구거나 산에서 때를 뜯 때 사용하게 유용하게 쓰이던 제작되어 전승되어 왔다.

또한 지도읍 선도에서 확인된 ‘감투갈쿠’는 신안 압해, 지도 등지에서 사용하는 감태를 지칭하는 ‘감투’에 갈

퀴의 방언인 ‘갈쿠’가 합성된 생활도구이다. 선도 사람들은 정월에서 음력 3월까지 감태를 채취하는데 감태는 갯벌에 붙어있어 갈쿠로 긁어서 채취하는데 이를 ‘감투 맨다’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생활도구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져 찾아보기 힘든 섬 생활사자료들이 사라지면 방언, 생업의 배경과 문화, 역사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군은 금번 6차 조사까지의 기초자료 연구와 수집을 토대로 21년에는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신안 중부권에 200억 규모의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산업화, 도시화 및 노령화로 지역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라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육지에



서는 보기 힘든 섬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은 우리의 경쟁력이 될 것이며, 섬을 지키고 살아온 군민들에게도 큰 자긍심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군은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1년에는 증도와 하의도, 신의도 생활사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영광군수, 청렴서약서 서명 2021새해 시작

“청렴·공정 조직문화 정착 시켜 신뢰받는 영광군 실현”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한 900여 영광군 공직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영광군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며 반부패·청렴 서약서 서명과 함께 2021년 청렴 영광군 재도약을 위한 협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영광군은 청렴서약서 서명운동 전개로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및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공사 등에 대한 계약방법·금액·계약업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공평성 유지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역 투명 공개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를 특별 관리한다.

또한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 오류 시정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도모 및 부패를 예방하며

사전·지도적 차원의 감사활동을 적극 펼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렴행정·부패방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교육내용을 학습을 통해 전 직원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삼시 자가학습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공직자 청렴의식을 제고한다. 또한,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패행위 확인 즉시 인사 불이익 조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청렴 서약을 계기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영광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렴한 영광군 만들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올해는 상복도 터졌다

지역경제·도시발전·문화관광 등 각종 전국단위 평가 수상 휩쓸어

올 해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와 예비문화도시 선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목포시가 전국단위 각종 평가에서도 수상을 휩쓸며 최고 도시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

특히, 목포시는 올 해 수상이 매년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사회복지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도시발전, 문화관광 등까지 시정 전방위에 걸쳐 폭넓게 쾌거를 이뤄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우선, 시에 따르면 목포는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유치 등에 적극 나선 결과 지역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

한 성과를 거뒀다. 전라남도 경제부민 평가에서는 일자리창출 분야 대상,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투자유치 활동 분야 우수상 등 모든 부문에서 수상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활동 분야는 각각 6년 연속 수상이다.

목포는 문화관광분야에서도 최고 도시 반열에 올라섰다. 1월 선정된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와 연계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내실 있게 준비한 덕분에 우선적으로 예비문화도시에 확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목포=박정수기자

무안군,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 출시

지류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10% 할인판매

무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1일부터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모바일 QR키트를 설치·배부하였고, 가맹점주에게 결제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모바일 상품권 발급 업무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류상품권에 이어 휴대폰을 활

용한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는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가맹점은 상품권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 해소와 수수료의 제로화를 통해 상품권 유통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이용자는 휴대폰 play스토어나 App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

입 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휴대폰 play스토어나 App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가맹점’을 검색 후 앱을 설치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면 된다.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도 지류형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하며, 구매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최종 확정...국비 112억 확보

함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국비 112억을 확보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신광면 소재 일대는 지난 2009년부터 상승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사업비 확보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함평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112

억 원 등 총사업비 22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하천정비 2.8km, 교량 4개소, 가동보 3개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실시계획영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2년 착공하여 하천정비, 취약방재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